

친근한 듯 독특한 작품세계

2015.12.23 | 편완식 기자

친근한 듯 독특한 작품세계 김홍주·신미경 각각 내달까지 전시회
극사실 세필화·다양한 비누 조각 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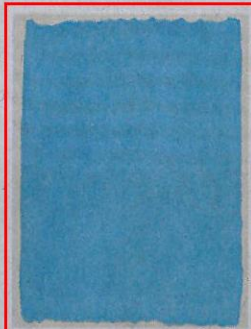
편완식 미술전문기자

독특한 기법으로 작업하는 두 작가가 있다. 1970년대 유행한 단색조 회화에 반해 극사실 세필화를 선보여 온 김홍주(70) 작가와 비누 작업으로 유명한 신미경(48) 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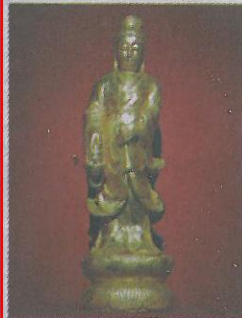
무수한 세필 붓질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김홍주 작가는 ‘엄청난 노력으로 그렸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그림’을 보여준다. 나뭇회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내년 1월 24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그의 전시에는 달항아리 형태의 이미지도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겹재 정선의 ‘금강전도’가 그려져 있다. 바늘처럼 가는 붓으로 산등성이 하나하나 굽어 내듯 그려 나갔다. 무슨 의미나 이념을 부여하려고 이미지를 숨긴 것이 아니라 즐겁게 그리려고 작품마다 대상을 정해 그려 넣은 것이다.

풍경 그림에서도 원근과 명암이 배제된다. 꽃이나 나뭇잎을 크게 확대해 그린 속칭 ‘꽃 그림’ 시리즈도 입체감, 질감, 명암, 깊이가 결핍되어 풍경이나 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체불명의 형상으로 보여진다. 작가는 이를 ‘묘사를 포기한 세필화’라고 했다.

내년 1월31일까지 학교재 상하이에서 전시를 갖는 신미경 작가는 서양 고전 조각상과 동양의 불상, 도자기 등을 비누로 만들어 온 작가다. 20세기 독일의 실존철학자 하이데거는 “예술품과 일상용품의 차이란 일상용품은 소모하기 위한 것이고, 예술품은 사용하더라도 절대 소모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신미경은 “만약 예술품



묘사를 포기한 김홍주의 세필화 작품.



비누로 만든 신미경의 불상 작품.

의 재질이 일상에서 소모되는 생활용품이라면, 이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소모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전시와 연계해 작가는 상하이의 5개 미술 관련 공공 화장실에서 독특한 프로젝트를 벌인다. 지난 11월 뉴욕 크리스티경매에서 모델리아니 그림 ‘누워있는 나부’를 1억7400만달러(약 1972억원)에 사들인 롱미술관을 비롯해 상하이 당대 예술관, 하오 아트 호텔, M50창작원 등의 화장실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비누로 만든 조각상을 화장실에 비치해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뭉개지고 떨어져 나간 모습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다. 소멸될 수도 있는 예술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의 생각은 “왜 우리는 끈질기게 작품의 영원성에 집착하는가”에 다다른다. 불교나 동시대 미술은 모두 물질 형태의 영원을 주장하지 않는다. 굳이 파손되고, 결함이 있고, 노후되고, 병든 모습과 같은 불완전한 상태를 애써 감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